

이렇게 들었다

진실한 말

“거짓말은 다툼과 원한 낳는다”

흥신 자는 있는데 잃은 자는 없다. 최근 한 도둑이 현직 장관과 정부 고위간부의 집을 턴 일이 일어나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만들었다. 거액의 현금과 달러, 보석을 훔쳤다는 도둑의 한 마디에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정당도 모두 야단이다. 피해당사자들도 거액의 출처에 대해 오락가락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현장 검증하는 가운데서 도둑의 말이 일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12만달러의 행방어부를 둘러싸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실한 수사를 통해 이런 사건이 하루속히 수습되고, 진실하지 못한 말이 불려온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할 것이다. 진실한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남에 대해 위증(偽證)하여 형법(刑法)에 걸리게 하지 말며,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다투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아함정행경>
■ 보녀동자(女童子)가 부처님께 물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진실에 새가지가 있으니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말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말이니, 너는 진실한 말을 익히도록 해라. <대집경>
■ 소위 해치는 말이니 거친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하는 말, 저속하고 나쁜 말, 용렬하고 천한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리고, 늘 정다운 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말,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말, 사람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는 말, 멋지고 도리에 맞는 말들을 하며, 항상

시기에 맞는 말, 분명한 말, 진실한 말, 도리에 맞는 말, 정답을 설하는 말, 잘 조복하는 말, 때에 따라 헤어려 결정할 말을 즐겨 생각해야 한다. 보살은 웃을때라도 늘 자세히 생각하거나, 하물며 굳이 어지러운 말을 함부로 하겠는가? <화엄경>
■ 망령된 말을 하지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하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저쪽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으므로써 다툼을 화해시켜 원한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제지역경>
■ 말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면,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선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결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이미타경>
■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학문(學問) 다문(多聞)을 빌리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말을 닦는 것만으로도 끝없는 복을 얻게 된다. <대지도론>
■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말할때에도 남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악이 가면 화가 오게 마련이니, 폭력의 보배를 그 몸이 받아야 하리라. 좋은 말을 하되 종(鍾)이나 경쇠를 고요히 두들기듯 하라. 몸이 시비가 없으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편안할 수 있으리라. <법구경>
■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 마라. 차라리 바른 가르침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그릇된 가르침을 설하고 천상(天上)에 태어나지 마라. <보살본연경>

김태복장군 재판을 보고



현진 조계종 포교부장

16일 대전 육군 보훈군사법원 소법정에서 열린 '101여단 군법관 건립관련' 군사재판을 방청한 총평은 한마디로 군 검찰의 종교편향적 시각을 확인한 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군 검찰의 공소사실 5가지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어려운 재판이며, 공판과정의 방청결과 무리하게 짜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군사적인 문제 또한 지휘관의 권한문제의 해석과 작전계획의 성패 판단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애매한 것이었다. '불사 시주금을 뇌물수수'로 판단하는 군 검찰의 주장은 증인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뇌물수리 등 비위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군법관 건립과 관련한 사형이 주로 다루어져 '불교 편향성' 재판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군 검찰관(교 모소령)은 광산적인 개신교 신도인 황 모대령의 진술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제로 재판관과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황 모대령의 진술에 근거해 진행하였다. 또한 군 검찰은 거액의 공산신속과 관련해 김태복 장군의 뇌물수수나 비리혐의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통일동선사업단에 율타리 보수금액을 요구, (군법당전환기금으로 전환가능하다는 판단) 편치미수·사기미수죄로 기소한 것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사청탁조건으로 시주금 3천3백만원에 뇌물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이 불사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고 시주자가 조건없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관관련 김태복장군의 뇌물수수, 횡령혐의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언

“따뜻한 손길 필요해요”



이현주 부산 낙동복지관 복지사

낙동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부산 강서구는 부산시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시설은 병·의원 9곳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낙후돼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 곳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구민의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중 무의탁노인세대가 259세대나 되며, 독거노인만도 244명에 이르는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들 노인층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아 외딴 산간 읍막에 혼자 살거나, 시각장애인 아들을 보호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할머니에서부터, 자식이 버리고 간 손자와 함께 사는 할머니, 참고같은 집에서 호박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할아버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읍막에서 병으로 누워만 있는 할머니 등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도 많다. 낙동복지관에서는 이들 무의탁노인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찬지원, 간호, 발레, 한방치료, 생활비후원결연, 급식비후원결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의 실천이요,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뜻깊은 일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을 간절히 기다린다. (051)271-0560-1



김재경 (취재 1부 기자)

군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대, 쌍글

이식 저인망 포교는 고사하고 그나마 낚싯대식 포교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군 포교를 주도해 온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2월28일 박상길 회장의 사임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용을 겪은 데다 조계종이 봉축 군 위문품 보내기 사업에 5백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15만여 군·장병에 대한 포교를 포기한 듯한 작각마저 들 정도다. 두 달간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군불교진흥회는 13일 12명의 이사중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권한대행에 이병문 수석부회장(영도건설 회장)을 선출했다. 그간 자민련의 김 모 의원이 회장후보로 거론되면서 군불교진흥회는 내부 갈등 등으로 사무회의 업무가 마비되어 봉축 군 위문품 보내기 사업 등의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 왔다.

초라한 군포교

이날 임시이사회는 정치인이 회장이 될 경우 군불교진흥회가 순수 군포교단체에서 벗어나 정치 바람을 탈 것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이사회 내부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 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병문씨는 군불교진흥회의 정치화를 우려해 고사해 온 회장직을 수락했으며, 26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조계종 역시 군포교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해 단 한권의 봉축 군위문품 지원금도 내지 않았던 조계종은 올해도 당초 예상된 1천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5백만원만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군불교진흥회의 당연직 총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무원장이 당연직 총재를 맡고 있는 중앙신도회에 대한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태다. 군포교의 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잠시나마 잊은 군불교진흥회나 거대한 포교 황무지를 외면하고 있는 조계종은 말로만 '포교 제일주의'를 외치면서 거사불교의 요람인 군법당의 부처님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jgkim@buddhapia.com)

독자의 소리

수행하는 스님 보면 한국불교 희망 보는듯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온 감동이 아직도 크다. 새벽 3시, 법고소리와 함께 새벽예불이 시작됐다. 부석사의 새벽예불 역시 반야심경이 끝날때까지는 여느 사찰과 다르게 없었다. 그러나 반야심경 염송이 끝나자 모든 스님들은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죽비소리에 맞춰 참선삼매에 들었다. 한시간 가량의 참선을 끝내고 스님들은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전을 물러났다. 그동안 만난 많은 스님들은 매일 한시간만이라도 참선을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듯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부석사에서 그런 여유가 없으니 하는 불평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매일 아침 예불시간에 참선을 하게 되니 말이다. 몇해 전 부석사를 찾았을 때 이 큰 절에 스님 몇 분만이 살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의상 같은 큰 스캐일의 스님이 아니고는 이 절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 법당을 가득 채운 스님들의 맑은 눈빛을 보았다. 또 어제 저녁에는 법에서 일하고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스님들을 보았다. 그러자 백장스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日日不作 日日不食)' 청규에 맞춰 수행과 율예에 열심

인 부석사 스님들께서 우리 불교의 희망을 보았으며 나는 가슴 뿌듯한 즐거움으로 아직 몸도 트지않은 사과나무 밑을 끼고 하산했다. 설대관(서울 봉은사 거사회)

조계사 성역화 불사 시민문화공간으로

현대불교신문에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성역화 불사가 오는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소식을 읽고 반기웠다. 지난 94년도 그렇고 지난해 말 TV와 신문으로 연일 보도되었던 조계사의 참담한 모습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최후가스가 자욱하고 유리병과 돌이 법당을 향해 날아들고 불대포와 화염병이 난무하던 조계사는 한국불교가 얼마나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져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조계사가 이제 일룩진 모습을 찾고 새 모습을 갖추게 되는 가 보다. 차체에 조계사 경내에서 자동차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안 보였으면 한다. 가끔 조계사에 가보면 조계사의 넓지도 않은 가담이 차들로 가득 차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조계사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나무와 꽃과 간이의자가 있었으면 한다.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마음 심란할 때 와서 쉬어가는 곳, 점심먹고 호젓하게 둘러 묵탁소리와 향내음에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도량으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영애(서울 성북구 정릉동)

조계종 혜암 종정스님 불자상 바로 세우시길

조계종 새 종정에 혜암스님이 추대되어 5월 11일 추대식을 갖는다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불교계 큰 어른신이라 혜암스님께서는 말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불교정도를 심어주시길 것으로 믿는다. 불자들이 아무런 걸림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진리의 바다에서 환희삼만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상, 바른 불자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철주(강원도 원주시)

법당계단 경사로 설치 장애인 불편 해소 기대

몇 년 전 조계종총무원들은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청사 입구에 지체장애인을 경사로를 설치했다. 경사로가 설치됐다고 해서 지체장애인의 총무원 출입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계종이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폭력이 난무했던 중단사태 와중에 이 경사로가 없어졌다. 20일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은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라도 올리려면 계단과 문턱의 장애를 넘어야한다. 법당에 오르는 불편이라도 해소해주길 바란다. 정세민(서울시 중곡동)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 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변경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출력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 : 011-869-4854

봉축연등·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호)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시공전선 전개도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에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민원동 37-7호 H.P: 019)380-3786 FAX: 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